

SINCE 1986

선보가족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SUNBO FAMILY



SUNBO Ind Co.,Ltd.

부산광역시 다대동 1517-2

TEL:051-261-3454

Http://www.sunboind.co.kr

2007년 7월 15일 일요일 | 제42호

창립 21주년

“앞으로도 힘찬 항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



지난달 29일, 우리 회사가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는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많은 선보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선보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우수 사원상, 모범사원상 시상과 함께 대표이사사와상임고문의 창립기념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이사는 “오늘의 선보가 있기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한 협력사 임직원과 가까운 질책과 함께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 회사를 도와준 모기업 임직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정신으로 나태해지거나 자만하지 말고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기초 질서 지키기, 3정5S’를 정착시켜 선 공정 고객, 후 공정 고객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프로로 거듭 태어나 우리의 밝은 미래, 노후를 보장받는 회사 건설을 위해 한마음 하나 되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희망의 뜻을 울리고 힘찬 항해를 할 것”이라며 힘찬 기념사를 전했다.

또한 장명우 상임고문은 “21년간 선보를 지켜내고 가꾸어온 여러 임직원과 특히 최금식 대표이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개인적으로 선보 21주년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으로 여기며 불타오르는 여러분의 열정에 작은 촛불이라도 되어 내 전부를 태워 도울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간소하게 행사가 치러진 이번행사는 우수사원 37명을 비롯해 모범상 3명 등을 포상하여 실속 면에서는 여느 행사보다 더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수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 ▲모범상
 - △본사: 생산부 장상권
 - △구평: 설계부 임우택, 생산부 김동희
- ▲우수사원상
 - △본사: 관리부 윤강재, 품질부 심성섭, 이수근, 구매부 예연희, 생산부 이은석,



채규만, 박재용, 김철곤, 김용하, 윤성재, 김동식, 이홍섭, 박희순, 조영록, 최병모, 이영동

△구평: 품질부 임현웅, 설계부 김무준, 생산부 투안, 박관호, 황철, 권대우, 김충복

△영도: 생산부 표종원, 박옥연, 김정민, 최재철, 유재필, 오성병

△목포: 설계부 오세준, 생산부 박성철, 김혜성

뜻을 물리기 위해 노력한 많은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창립21주년 행사. 지금보다 더 희망찬 뜻을 울릴 스물두번째 항해를 기원해 본다.



기업사랑·학교사랑 1사(社) 1교(校) 합동 결연식

2007. 6. 18. (월) 14:00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상공회의소 후원: 부산일보·국제신문·KBS 부산방송총국·부산 MBC·KNN



향토기업 '1사 1교' 합동결연 공식출범

지난달 18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허남식 부산광역시장과 설동근 교육감,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18개 결연기업 대표, 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사 1교 합동 결연식'을 가졌다. 이는 교육재정난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1사(社) 1교(校)' 결연운동이 결실을 맺고 있는 가운데 우리 회사는 부산기계

공업고등학교(교장 오영복)와 결연하여 성적우수 장학생 학자금 지원, 대표이사 강연, 각종행사 지원, 회사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번 '1사 1교' 결연을 통해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각종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교육공동체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7년 다대 어르신 큰잔치 “흥겨운 한마당” 지원

우리 회사는 지난 5월 30일 10시부터 복지관 뒷마당 주차장에서 치러진 2007년 어르신 큰잔치 “흥겨운 한마당” 행사

에 백미 7백 여명 분과 바나나 10박스, 떡 4말 등 총 1백1십8만원을 지원했다.

물운대종합 사회복지관 직원 일동은 “행사를 후원해준 최금식 대표이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진 것은 모두 많은 부분을 후원해준 선보와 대표이사님 덕분인 것 같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 행사는 물운대 복지관 주최로 개최 되었으며, 지역 어르신이 1,000분 이상 모여 풍물패 길놀이, 문화공연(진행자 노래 및 레크리에이션, 아동 공연-합창/합주, 동래야류 공연, 민요, 동래학춤, 각설이 타령, 다같이 즐거운 디스코 한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와 점심식사 제공 및 기념품 등을 제공했다.



창립 21주년 기념사 | 대표이사 최 금 식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회사를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선보가족 여러분과 창사 21주년의 영광된 자리를 함께 가질 수 있는데 대해 선보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선보가 있기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한 협력사 임직원과 따가운 질책과 함께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 회사를 도와준 모기업 임직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업초기 Crane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함께 불굴의 의지와 정신력으로 회사를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선보가족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희황에 힘입어 매년 매출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몇 년 전부터 임직원 대다수가 꼭 해내고 말겠다는 창의력과 불굴의 의지와 정신력은 실족하고 무사안일과 자만심으로 인해 우리 고객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년 전 창립20주년 기념사에서 본인은 매출 천억원대 진입기반조성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기존제품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LIFT 21의 실천과 Event 준수" "부서별 개인별 업무표준화/정형화"와 함께 "고객과 함께하는 회사" 고객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고객을 신으로 모시는 마음가짐의 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전 임직원 지혜를 모아 한마음 하나 되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직장생활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슬로건과 구호에 그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으나 우리 모두가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

고 현실에 안주하는 무사안일의 사고와 발상이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선희황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과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현실을 인지해야 하며 조선희황이 나빠질 때는 길어진 호황만큼 불황의 늪은 깊고 길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은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단순제품에 불과합니다. 불황에 앞서 벌써부터 우리 회사는 갈수록 경쟁력에 잃어가고 있어 조선희황이 나빠진다면 경쟁력을 갖춘 고유제품이 없는 우리의 미래는 암울함을 넘어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고사 성어 중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하라는 말로 지금의 선보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말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매출성장에 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말고 기존제품에 대해 원가혁신 및 정반회전을 배가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로 제공하여 우리에게 등을 돌린 고객이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21년 전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정해진 것은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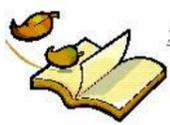
개선의 기본은 보다 단순하게 보다 편리하게입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에 접근하는 것이 개선의 시발점입니다. 기초질서지키기, 3정5S는 개선에 앞서 직장생활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며 개선의 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구호와 슬로건에 그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시발점을 마련하고 기존제품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음 달부터 한국생산성본부의 지도아래 생산성경영 체계개선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는 전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지금까지 슬로건에 그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을 보다 간편하게 접근하여 행동으로 실천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출근하고 싶은 회사, 건강하고 화목한 회사를 가꾸고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발점입니다. 선보가족 모두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 한마음 하나 되어 다시 시작해 봅시다.

선보가족 여러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기존제품의 생산원가를 혁신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정착 그리고 정반회전을 배가 시키는 것은 선보가족 여러분의 몫입니다. 본인이 기존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간을 낭비한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본인은 조선희황에 대비하고 선보의 밝은 미래와

선보가족 모두의 미래를 보장받는 회사, 노후가 보장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경쟁력 있는 신규 품목개발과 새로운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기존제품의 경쟁력 확보와 정반회전을 배가 등 지금의 현안은 선보가족 모두가 한마음 하나 되어 스스로 해결하여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본인은 안심하고 경쟁력 있는 신제품개발 신규 사업에 전력을 투구할 수가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본인은 선보가족 여러분 모두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불신의 틀에서 벗어나 동료들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하여 선 공정 고객, 후 공정 고객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프로로 거듭 태어나 우리의 밝은 미래, 노후를 보장받는 회사 건설을 위해 한마음 하나 되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희망의 뜻을 울리고 힘찬 항해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해 회사발전에 기여한 선보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선보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가정의 화목과 행복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렬상무의 **이한권의책**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화술

나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남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화술이 성공을 부른다!

현대 사회는 대화의 시대 또는 협상의 시대이다. 이제 말하기는 단순히 의사 전달이나 소통을 위한 방편이 아니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사상을 나타

내는 중요한 자기표현 수단인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 즉 가치를 결정한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성공을 꿈꾸는 현대인에게 화술은 필수적인 생존 무기이다. 이 책은 단순한 의사 표현 방법을 넘어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면서 효과적으로 마음을 전하고, 자신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대화 기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싶을 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을 때, 서먹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싶을 때, 칭찬해 주고 싶을 때 등등 사회생활에서 자주 부딪치게 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상대에게 다가야 하는지를 72가지의 실용적인 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기술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처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인격과 가치관을 교환하고 좀더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화술 기법을 터득할 수 있다. 올바른 대화법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도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공을 꿈꾸는 현대인을 위한 유용한 화술 지침서이다. 또한, 영업 일선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세일즈맨들에게도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

격려사 | 상임고문 장 명 우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사 2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축하드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또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뒷바라지해준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일이 시작은 어렵고 초창기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더욱이나 사업을 한다는 것, 매일 매일을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는 경쟁 세계는 한마디로 비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직원 여러분은 지난 21년간 선보를 지켜왔고, 최금식 사장의 열정과 헌신적 지도는 우리 선보를 중견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임직원 모두가 하나같이, 회사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회사가 있다는 신념의 덕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지난 21년간 우리의 고통,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되돌아보고 서로 서로 격려하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경험해서 확인한대로 기업의 미래는 항상 불투명하며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과, 어떤 변화와 곤경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용기와 신념만 있다면 능히 극복하고 전진할 수 있다는 각오와 다짐



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를 바탕으로 회사 역사와 규모에 상응하도록 경영체제를 정비·혁신하고, 대기업 작업분업 성격의 사업구조를 기술분업과 고유제품 생산 구조로 조정·확대·발전시켜야 하며, 전사원의 창의와 도전을 무한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서 「제2의 창업」, 「새로운 선보」로 도약해야 합니다.

나 개인적으로 선보 21주년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으로 여기며 불타오르는 여러분의 열정에 작은 촛불이라도 전부를 태워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 노고에 경하드리고 다함께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달의 책 추천

홈페이지 사보 게시판에 글을 남겨 주신 분들 중 5분을 매달 말일 추천하여 이달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달에는 추천을 통해 <설계부 오영석 사원>, <유니텍 홍성원 사원>, <생산1부 최재호 과장>, <설계부 이주연 사원>, <유니텍 김황중 차장>이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이달의 책은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읽고싶은 분들은 자유 대출 하세요.



철과 아연의 조화, 용융아연도금의 탄생 '태양금속'

단일 업종의 자부심으로

태양금속은 선박용 의장품과 파이프 용융아연도금을 주로 하는 업체다. 태양금속은 1974년 대한조선공사 내에 용융아연도금공장으로 설립되었다가 1981년 서흥화학공업(주)으로 별도 분리되었다가 마침내 1994년 태양금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을 개조, 보수했다. 철과 아연의 조화를 만들어낸 태양금속은 철이 산소와 결합해 녹이 스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용융아연도금을 한다. 이것은 철의 표면에 아연이 침투해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고 도금이 오래갈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방법을 도입해 지금은 잘 갖추어진 체제로 현재 75명의 사원으로 연간 매출 157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금속 정용홍 대표는 "회사 명칭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오랜 기간 이 분야에서 일해 온 만큼 현장의 직원들의 기술적으로 노련하고 성숙해 설비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이 우리

회사의 장점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단일 업종 회사로는 규모가 큰 편이고 순수하게 제작한다.

"한번 더 OK?" 가 아닌 "한번에 OK!"

잘 갖추어진 설비체제 만큼이나 품질우수와 대량생산이 가능한 점은 태양금속의 빠뜨릴 수 없는 장점이다.

정용홍 대표는 "까다로운 회사라도 우리 회사가 일을 했다고 하면 통과를 시킬 만큼 우리 회사는 품질은 믿을만하다. 실제 그 믿음을 쌓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엄격하다"고 말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데 비해 태양금속은 그것을 말 그대로 실현하고 있는 모습이다.



선보에 관해서 정용홍 대표는 "선보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회사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연구와 노력을 토대로 많은 성장을 거듭해 발전된 선보를 일구어 낸 것 같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서나가려는 의지가 돋보이고 그에 따른 도전정신이 좋은 것 같다. 우리 회사도 선보의 성장을 보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선보 본사와 가까이 있는 만큼 직원들의 교류를 늘리는 것은 물론 서로 믿음이 있는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으면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16호 칭찬 릴레이

생산2팀 한진우 주임

나보다는 주변사람들을,
다인배려의 표본(標本)

선보가족의 16호 칭찬주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인: 김종섭)

힘들어도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사기를 북돋워주려 하는 한진우 주임

칭찬 릴레이 16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저 역시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선정되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이러한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 얼떨떨하기도 해요. 더군다나 저에게 '사부' 격인 김종섭 대리님이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선정해줘서 그 감회가 더 새로운 것 같아요. 본사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어서 사람들의 반응은 잘 모르겠지만 칭찬을 받았으니 이전보다 한 번 더 생각하며 신중을 기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 어떤 마음자세로 근무하세요?

회사에 입사한 지가 2년 7개월쯤 됐어요. 입사하고 2달이 지나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포조선 내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 물건을 납품하고 자재관리와 더불어 A/S접수 등의 일을 하고 있어요. 납품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일의 진행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되도록 제시간에 납품하려고 많이 애쓰는 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일을 하다보면 가끔 화가 날 때도 있는데 그 때 감정을 드러내버리면 제가 아니라 회사 이름에

떡칠하는 셈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매사에 감정을 절제하고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에 비중을 크게 두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동료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하루 종일 얼굴 맞대고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고마운 동료들 덕분에 많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우선 저를 추천해 준 김종섭 대리님, 정호경 상무님, 임영삼 부장님, 유승진 대리님, 김이곤 대리님, 이은석 대리님은 저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동료들이 있기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17호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해 주세요

누구를 추천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주변에는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자재 운영팀에 김태균 기사를 추천하려고 해요. 적재적소에 자재를 현장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항상 일을 함께 있어서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맡은 업무에도 충실해요. 자재 운영팀의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7호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으로 김태균 기사를 추천해요.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생생 현장의 소리

“즐기면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타고난 엔지니어 | 이창복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일 자체를 즐길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그러나 그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선보 안에는 이런 행복함을 누리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창복씨다.

평소 어떤 일을 하는지, 일할 때 마음가짐은?

저는 유니트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주로 탱크를 위주로요. 평소엔 일할 때는 한번에 확실하게 하지는 마음으로 일을 해요. 물론 이 분야 일 자체가 저한테 적합한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하면서 한 번도 이 일이 지겹다고 생각해보는 적이 없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다가보다 일 자체를 좋아하고 즐기려고 하는 편이에요.

입사 할 때의 선보와 지금의 선보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선보에 입사한지 4년 정도 됐는데 입사할 때랑 지금은 규모면에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여기도 자갈밭이어서 일할 환경 조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던 것에 비해 지금은 공장의 규모가 많이 커졌어요. 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지게차 장비로 일을 해서 많이 위험했고 어려움도 많았죠. 인원도 적었고 지금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

금은 회사규모와 인원 그리고 사원복지에 관한 부분에서도 많은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일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혹은 선보에게 바라는 점은?

일을 하면서 육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스스로가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일적인 부분에서는 자재에 잘 안 풀릴 때 어려움이 많아요. 거의 제품을 완성해놓고도 한두 가지 자재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본사에 비해 자재부서가 따로 없어서 자재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아요. 시스템적인 체계가 확립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또 많은 사원들이 자신이 속한 팀만을 생각하는 것이 많이 아쉬워요. 물론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선보 유니탁’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해요.

제품하나를 완성해 바지에 실어 보낼 때는 마치 자식들을 시집보내는 것 같이 아쉽고 뿌듯하다는 이창복씨. 그만큼 제품하나하나를 만드는데 자식들을 돌보는 것 같이 정성을 다한다. 그 정성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창복씨가 일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

축하합니다

본사공장	이영근 (8/13) 배희진 (8/14)	생산3팀	유지중 (8/2) 김정민 (8/7)	구평공장	황 철 (7/23) 이상구 (8/12) 강화진 (8/8) 권창영 (8/12)	목포공장	생일 생산부 김대근 (7/18) 김정식 (7/24) 김용희 (7/27) 황만민 (8/3)
생일 생산2팀 윤현문 (7/18) 김종하 (7/21) 윤성재 (7/23) 한진우 (7/24) 최봉순 (8/2) 하중성 (8/6) 김영자 (8/7)	생산관리부 신성인 (7/19) 품질보증부 백승모 (7/23)	품질보증부	이혜자 (8/1) 최경호 (8/13)	생일	대한FENG 차승훈 (8/7)	상무님 이규현 (7/20)	
입사일 관리부 서재욱 (7/27)	생산1팀 최광욱 (7/25)	A/S팀	노재태 (8/2)	영도공장	생일 생산관리부 표중권 (7/20) 김태경 (7/29)	임사일 생산부 노성담 (8/2)	
생산3팀 유지중 (7/16) 신용화 (7/26) 박영호 (7/27)	구매부 최동배 (8/5)	설계부	고상현 (8/6) 이주연 (8/7)	명성산업	임사일 품질보증부 이주희(7/24)		

‘선보가족’은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선보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 가족들의 편지나 자녀의 일기, 여행 이야기 등...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집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덕으로 사보와 함께 문화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051-260-5535 011-7435-3454 윤강재 과장

틀린 그림 찾기(5개)